

베트남 북부지역의 국제결혼의 증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

조 현 미**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in the Northern Vietnam and a Transnational Social Space*

Jo, Hyun-Mi**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마을’이라 불리는 북부베트남의 시골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지역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과 가족들 사이에 형성된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송금 등의 수단을 이용한 물질적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편승하는 자와 편승하지 못하는 자가 공존하는 시골의 공간은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초국가적인 사회공간으로 변화하여갔다. 한편, 여성들이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초국가적인 이주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부모형제의 공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 더 견고해져가는 이주회로의 존재,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진화, 공진자의 역할 등으로 인하여 일견 한 젊은 여성의 가족을 위한 희생으로도 보일 수 있는 초국가적 이주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시골마을에서도 초국가적 사회공간이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었다.

주요어: 한국마을, 초국가적 사회공간, 네트워크, 송금, 공진

Abstract: In this study, a transnational social space which emerges in a rural village of the northern Vietnam called ‘Korean Village’ is analyzed. The immigrant women of whom the spouses are Korean were forming transnational network with family members through which frequent and active communications took place. At the same time materialistic exchanges were occurring by means of remittance. Like most rural areas where up-to-date life patterns co-exist with outdated ones, the studied region was turning into a transnational social space under the influence of indigenous locality, culture and other economic factors. Women were found to play a virtual role as resonator in practicing the transnational activity of migration. With the migration routes getting more and more solidified, the evolution of the transnational social space and the role of resonator, the form of transnational migration which makes involved young women look like a sacrifice is ceaselessly expanding around a specific region. This is noticeable because a rural village seemingly far away from internationalization is not only becoming the transnational social space but also a stage of its evolution.

Key Words: Korean Village, transnational social space, network, remittance, resonance

1. 서론

1) 연구 목적

세계화와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국내에서도 계속하여 증가해가는 외국인거주자 및 국적취득외국인, 그리고 국제결혼가정에 관한 접근방식이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국가적 이주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배경으로서 이제까지 주로 주목해왔던 국가 혹은 정부라는 단위뿐만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으로 이주를 실천

하는 개인의 행위와 그들이 생활하는 초국가적 사회공간에 주목하는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 초국가적 사회공간이란 초국가적 이주라는 행위를 통하여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변화되어가는 로컬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대구시 이곡동의 에스닉 커뮤니티(조현미, 2006),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한정우, 2008), 혜화동의 리틀 마닐라(정현주, 2010)와 같은 국지적인 로컬공간의 형성과 변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에는 초국가적 이주의 유발요인으로서의 모국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배경은

* 이 논문은 2010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mjo@knu.ac.kr)

물론, 초국가적 관계망 형성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현지에 대한 시각이 누락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형성과 변화에는 이주자간의 네트워크가 집결되고 확산되는 기능의 중첩이 주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자 네트워크는 이주자의 정착지에서 이주자간의 연결망을 형성할 뿐 아니라 본국의 가족·친지와와의 연결기능도 담당하여 본국의 로컬공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경우, 강한 가족 결속력과 유교적인 관습으로 인하여 국내에 정착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의 유지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대면 접촉뿐만이 아니라 전화와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접촉, 송금과 물자의 교류 등과 같이 상호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공간을 점유하게 된다. 그 결과 세계화와 상호관계에 있는 공간상의 크레올화(creolization) 혹은 혼종성(hybridization)을 띠는 공간이 나타나게 된다(린다 맥도웰, 2010, 348).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화와 로컬공간간의 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지리학적 연구에서조차 전통적인 관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로컬지역은 시대적 변화에 비교적 느리게 반응하는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장소란 더 이상 영토에 묶여 있거나 범주적인 것이 아닌 일군의 사회 공간적 관계의 조합과 일치하며, 사회공간적 관계는 역사적으로 한 특정 공간 내에서 분리되어 형성될 수 없다는 점(린다 맥도웰, 2010)에서 주변지역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로컬공간은 장

소와 관련한 역사성과 공간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의 동질성과 외부와의 차별성에 의해서 지역적 특성(로컬리티)이 인식될 수 있는데(소진광, 2011, 72), 내부의 동질성은 외부와의 지속적인 접촉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지역적 특성을 창출해낸다는 점에서 한 지역은 전지구성을 떨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인류학자 골드링(Goldring, 1996), 클리포드(Clifford, 1997) 등의 초국가적 이주의 송출지와 유입지 상호간의 관련뿐만 아니라 송출지에 있어서의 초국가적 이주에 의한 로컬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초국가적 이주자에 의해서 변화하는 로컬의 사회 공간적 특성- 트랜스 로컬리티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이영민 등, 2012: 이용균, 2007), 이는 초국가적 이주자의 정착지로서의 로컬리티의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송출지에 있어서의 초국가적 이주를 위한 트랜짓 라운지로서의 역할(Clifford, 1997, 1)과, 관계망형성의 결과 변화하는 장으로서의 초국가적인 공간으로서의 로컬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초국가적 이주의 동인이면서 이주의 결과로 인한 직접적인 삶의 영역적 변화가 예상되는 국제결혼이주 여성의 가족 및 출신지역의 사회·공간적인 변화양상과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지역은 한국인남성과의 결혼으로 입국자가 가장 많은 베트남여성¹⁾의 출신지역이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6명과 2010년 10

표 1. 구미시 결혼이주여성 인터뷰 응답자

이름	나이*	출신지역	비 고
옥○	31세	Thai binh	대졸, 2005년 11월 결혼, 한국어로 면담
향○	28세	Hai Phong	고졸, 2005년 6월 결혼, 한국어로 면담
두○	29세	Can Ty	2006년 결혼, 한국어와 베트남어 섞어서 면담
○하	26세	Hai Phong	2006년 결혼, 한국어와 베트남어 섞어서 면담
홍○	26세	Ho Chi Minh	2006년 10월 결혼, 한국어와 베트남어 섞어서 면담
단○	28세	Ca Mau	2007년 7월 결혼, 한국어와 베트남어 섞어서 면담

*인터뷰 당시의 나이를 말함

표 2. 베트남 현지 인터뷰 응답자의 특성

성명	성별	연령	면담지역	가족관계
A	여	38세	Tu Son, Hai Phong	부부와 1남2녀. 그 중 큰딸이 한국인과 결혼
B	남	60대	Tu Son, Hai Phong	큰딸이 홍콩으로 결혼하여 갔음
C	남	60대	Tu Son, Hai Phong	부부와 자녀 7명(모두 딸). 그 중 넷째 딸이 한국인과 결혼
D	남	67세	Dong Hung, Thai binh	부부와 2남3녀. 셋째 딸이 한국인과 결혼
E	남	61세	Dong Hung, Thai binh	부부와 1남 3녀. 첫째 딸은 마카오에서 취업. 둘째딸과 셋째 딸이 한국인과 결혼
F	여	55세	Dong Hung, Thai binh	부부와 1남 2녀. 첫째 딸이 한국인과 결혼
G	남	59세	Dong Hung, Thai binh	부부와 1남 1녀. 아들은 영국에서 유학 중. 딸이 한국인과 결혼
H	여	49세	Cat Dai, Hai Phong	부부와 2녀. 첫째 딸이 한국인과 결혼
I	여	55세	Cat Dai, Hai Phong	부부와 2녀. 첫째 딸이 한국인과 결혼
J	여	60세	Cat Dai, Hai Phong	부부와 1남 1녀. 딸이 한국인과 결혼
K	여	50세	Xi Mang, Hai Phong	부부와 2녀. 첫째 딸이 한국인과 결혼

*B씨와 C씨는 나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두 사람 다 60대로 보였다.

월18일부터 2011년 1월 8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서 결혼동기와 결혼과정, 가족관계 등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중 1명(항○)과는 2회의 가정방문과 3회 이상의 전화통화로 라포를 형성하였으며, 또 다른 1명(옥○)과는 6개월 이상, 월 2회 이상의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고 그 대화내용을 메모 및 녹음, 전사과정을 거쳐 보관하였다²⁾. 구미시 결혼이주여성 응답자는 <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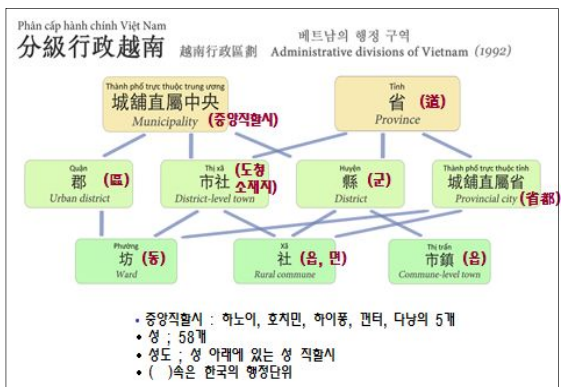
또한 결혼이주여성들과의 수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가족과 출신지역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수한 후, 2011년 2월 14일에서 26일 사이에 베트남 북부지역의 하이퐁시와 그 인근, 그리고 하이빈성 일대를 방문하여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마을에서도 두드러지게 외관이 좋은 집³⁾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고, 일반화를 위하여 길거리에서 마주친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현지 조사에는 옥○씨가 동행하여 안내와 통역을 맡아 주었다. 그리고 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베트남 국내 신문기사와 결혼이주여성들의 인터넷 국내 소식지를 분석하였다. 베트남 현지 인터뷰 응답자는 <표 2>와 같다⁴⁾.

3) 연구지역

베트남은 5개의 직할시와 58개의 성(省)으로 이

루어져 있는데, 성 아래로 탄포(thành phố), 현(huyện, 縣), 시사(thị xã, 市社)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홍하델타에 위치한 하이퐁(Hải Phòng)시와 박닌성(Bắc Ninh) 키티현(Kien thuy)의 두손(Xa Tu Son)·라플레(Xa Lap Le)·팔래(Xa Pha Lai Nguyen)마을과 타이빈성(Thai binh)의 동흥마을(Xa Dong Hung)이다. Xa는 한국의 행정구역 단위로는 읍·면에 해당한다.

하이퐁시는 하노이와 호치민에 이어 베트남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서, 북부최대의 항구도시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베트남 전체에서는 5



출처: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의 자료를 수정하여 인용

그림 1. 베트남의 행정구역

위, 북부지역에서는 하노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산업도시이며, 1993년 베트남 최초로 수출가공구로 인가되어 홍콩 등지에서 투자를 유치하여 수출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하롱베이에 면하고 있는 어촌인 두손 마을은 한 마을 내에서 외국인(주로 한국인 및 대만인)과의 혼인이 특히 많은 곳으로 알려져 베트남의 언론에서도 수차례 방영되었던 곳이며, 라플레와 팔레 마을은 두손 마을과 인접한 곳으로 역시 국제결혼이 성한 곳이다. 대만과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이 계속하여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이 일대의 마을들은 거의 모든 집에 국제결혼 한 자녀가 한 명 이상 있을 정도로 외국인과의 결혼이 성하며, 한 가족 중에서 3~4명이 국제 결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두손 마을에서의 면담조사에 의하면, 마을 전체 100여 가구 중에서 70여 가구가 한국 혹은 대만인과 결혼한 자녀가 있으며, 예전에는 대만인과의 혼인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한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타이빈성의 동흥 마을도 역시 국제 결혼한 여성들의 가족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지역으로 옥○씨의 고향이기도 하다.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소식에 의하면⁵⁾, 외국인과의 결혼이 급격히 지역 내에 확산됨으로써 야기된 사회적 과장으로 인하여 하이퐁성 8개 면 지역에 대한 외국인과의 결혼금지령이 발행되기에 이르게 될 정도였다. 8개면은 Lap Le, Pha Le, Phuc le, Gia Duc, An Lu, Tu Son, Dai Hop, Doan Xa으로, 그 중 Lap Le, Pha Le, Tu Son의 3개 면



그림 2. 연구지역의 위치

이 본 연구지역에 해당한다. 동 금지령은 2011년 7월 25일부터 일시적으로 시행된 후 동 년 11월 30일에 해제되었다고 하지만, 해당지역에서의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2. 초국가적 이주와 초국가적 사회 공간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는 초국가적 이주라는 행위를 통하여 지리적·문화적·정치적 경계에 걸쳐서 사회적 영역이 형성되는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다. Smith and Guarnizo(1998)는 초국가주의를 유도하는 흐름(flow)의 방향, 즉 초국가주의를 좌우하는 헤게모니에 주목하여 자본에 의해 국가를 초월한 통제와 지배, 간섭이 개인의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위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 from above)’와 개인 혹은 개별적 기업에 의해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서 이문화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초국가주의(transnational from below)’로 구분하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흐름은 반드시 거시적인 것만도 아니고 미시적인 것만도 아닌,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행해지는 복합적인 형태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를 초월한 이주는 국가의 규제와 제약을 동반하지만, 흐름이 이루어지는 실체는 국가 내의 특정한 지역(로컬)이며, 흐름의 주체는 인간의 집단 혹은 개인이다. 또한 초국가적인 흐름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로컬공간은 반드시 국가와 국가 간에 있는, 추상적이면서 상상상의 제 3의 공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박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적인 공간’이며, 동시에 정박지를 연결하여 형성되는 ‘공적인 영역(transnational public space)’이다(Levitt, 2001). 물론 그곳에는 글로벌한 경제적 재구성과 기술적인 발전, 이민의 사회적인 실천에 관한 미크로한 동태가 작용한다. 그리고 나아가 그곳은 이민들의 일상적인 실천 그 자체가 초국가적인 행위나 복수의 국가에 걸쳐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족이나 초국가적인 사회적 관계성의 재생산에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이기도 하다(広田, 2003). 그러한 의미에서 인구와 정보의 이동이 집결되고 분산되는 결절지

로서의 공간을 현대도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곳을 자장(磁場)으로 하여 구심적으로 혹은 원심적으로 멀티 에스닉(multi-ethnic)한 세계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広田, 2003). 문제는 멀티 에스닉화하는 각각의 도시적 세계 속에서 더욱 더 공존의 실천이나 아이덴티티 형성의 문제가 중요성을 띠게 되고, 장소의 의미도 포함하여 해당 사회의 가치나 제도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広田, 2003, 15).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샷센(1998)이 지적하듯이 ‘세계도시’의 이미지에 부응하는 도시공간 뿐만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동향에서 뒤떨어진다고 간주되는 사람들이나, 반드시 그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보와 물자가 집결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정보와 물자가 교류하는 지점, 그리고 초국가적인 이주를 실현하는 주체로서의 이주자의 도달점뿐만 아니라 출발점도 역시 초국가주의를 유도하는 흐름(flow)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일찍이 전통적인 시골마을의 트랜짓 라운지(transit lounge)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클리포드(Clifford, 1997)의 연구와 미국의 도시를 오가는 멕시코 이주노동자의 촌락에 있어서의 초국가적 사회적 영역으로의 변화에 주목한 골드링(Goldring, 1996)의 연구, 이민송출국인 도미니카공화국과 보스턴의 유입지 커뮤니티에 관한 레비트(Levitt, 2001)의 연구 등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골드링은 멕시코의 촌락과 미국의 두 도시사이에 이주자에 의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송금(remittance)이 오가고, 그곳에 이주자를 송출하는 가족이던 그렇지 않은 가족이던 초국가적인 왕래가 사회적으로 가능하도록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초국가적인 사회적 영역’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초국가적인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 우선 먼저 그 속에서 농밀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고, 점차 생활양식이 공유되기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그곳에 ‘초국가적인 커뮤니티(transnational community)’가 출현하게 된다(Goldring, 1996). 현대사회와 같이 종래의 커뮤니티 개념이 점점 더 그 영역성을 상실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영역을 초월한 라이프스타일의 엔클레이브(lifestyle enclaves)는 초국가적인 커뮤니티의 전형(広田, 2003, 19)이

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행위’와 ‘구조의 규정성’ 간의 변증법적 관계, 혹은 ‘집단지 사상이나 의지’와 ‘상상력’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생산된’ 공간으로서의 사회적 공간(노대병, 2000, 48)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과정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지구적 재편과정을 배경으로 연계된 국가 내의 특정지역 간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불균등성에 따라 초래된 초국가적 이주(최병두, 2011, 15)에 의하여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어지는 것이다.

한편, ‘초국가적인 커뮤니티’는 송출국과 유입국의 특정한 장소 사이에 형성된 이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주의 회로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송금행위가 행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과 이민이 마크로 레벨의 개발전략에 뛰어드는 경로로서 송금의 흐름은 금융시장에서 매일 매일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의 흐름과 비교하면 경미하지만 발전도상국 혹은 정체(停滞)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우가 많다(Sassen, 1998, 22). 샷센은 정규취로 뿐만 아니라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비합법적인 인신매매, 혼인, 가정부, 간호부와 같은, 여성을 조직적으로 수출하는 것과 더욱 더 계속하여 증가하는 여성 이주 노동력에 의해 본국으로 보내지는 송금을 ‘글로벌적인 대체회로’라고 하면서, 이러한 회로를 글로벌화에 대항하는 ‘지리적 역학’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대항적인 지리적 역학은 많은 경우 유입국 측에서는 ‘자원’으로서가 아니라 ‘짐’ 혹은 ‘부담’으로 여겨지며, 유출국 측에서는 중요한 이윤형성원, 혹은 외화 획득원으로 여겨지면서(Sassen, 1998, 27) 상호간에 구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한편, 대항적인 지리적 역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이주 및 이주의 실천과 관련하여 그들을 지지하며, 이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들이나 경제적·사회적인 제반조건, 즉 공진자(共振者)의 존재와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진이란 사전 상으로는 특정 진동수를 가진 물체가 같은 진동수의 힘이 외부에서 가해질 때 진폭이 커지면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 물리학적인 용어로서, 사회학자 히로다(広田)는 이를 초국가적인 이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다(広田, 1995, 192). 즉,

이주에 대한 매력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 형성된 이주회로와 초국가적인 이주 행위를 유도하는 사회 환경은 촉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주행위의 실천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영역은 공진하면서 계속하여 확대·전파되어 가게 된다.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 쌍방에서의 공진자의 존재가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으로 연결되어 초국가적인 이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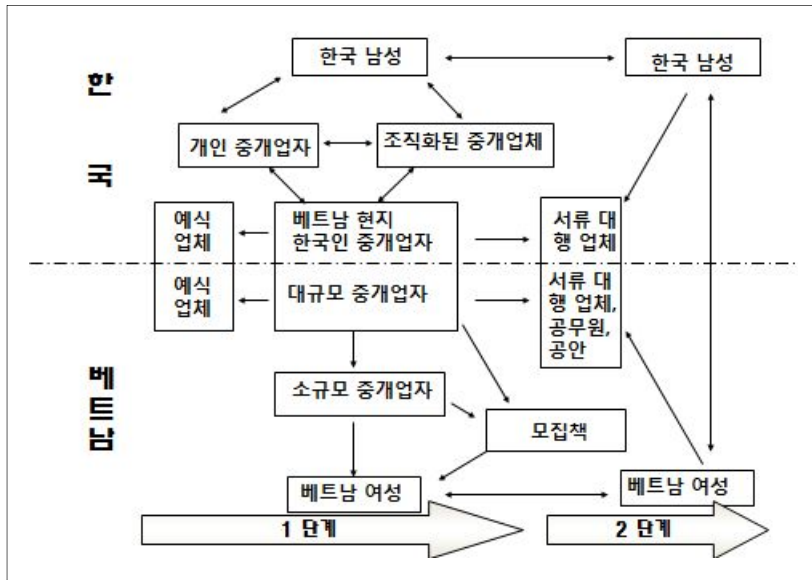
3. 베트남의 환경변화와 국제결혼의 증가

약 6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의 프랑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로도 베트남은 10여 년간의 정치적인 혼란기, 그 이후 약 20여년에 걸친 통일전쟁을 거쳐 1975년에 베트남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통일 이후 실시된 두 차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실패를 경험으로 1986년부터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도이 모이(Đổi mới)정책⁶⁾이 실시된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도이 모이 이후 인구가동의 통제가 완화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격차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생산연령인구의 유출로 인한 농촌의 인구문제뿐 아니라 도시빈민의 양산으로 인한 도시내부의 양극화 심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남부의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동남부해안과 북부의 하노이, 하이퐁, 다낭 등 홍 강 델타지역과 메콩강 델타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한도현, 2000, 67) 지역 간의 불균형발전과 인구의 급격한 도시화라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로의 이주뿐만 아니라 해외로의 노동이주도 증가하여 그들이 베트남으로 송금한 송금액이 1991년에는 전체 수입액의 2% 미만에서 2004년에는 10%를 차지하면서, 해외직접투자 지분이나 정부개발원조 지불액을 훨씬 능가하였다(김지은, 2007, 18-19). 한편 결혼이주는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면서 외형상으로는 베트남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⁷⁾ 특히 집단맞선, 단체합숙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결혼중개활동을 방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안정된 중개체계가 확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베트

남 정부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제결혼을 여성동맹(Women's Union)에서 중개·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동맹에서는 공공연하게 여성모집 브로커들로부터 신붓감을 제공받고 있다(한건수·실동훈, 2006, 111-117). 여성동맹의 중개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결혼을 공인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을 찾고 알선하는 직접적인 모집책에서부터 국제결혼업무의 대행업에 이르기까지 국제결혼이 성사되기까지는 양국에서 수차례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국제결혼 당사자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혼이주의 양상은 점차 사회적 연계망을 이용한 연쇄이주(chain-migration)의 형태로 변화해가면서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즉, 상대에 대한 정보획득의 용이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 중개업자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간의 결혼이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에서 먼저 결혼한 친지의 소개를 통한 결혼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⁸⁾. 그런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결혼의 확산은 친척, 친구, 이웃주민이 연결고리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특정지역 내에서 반복되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국제결혼은 두 국가사이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이지만, 그 행위가 정작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로서의 지역(로컬) 대 지역(로컬)이 상호 교류하는 가운데 초국가적인 지역성(trans-locality)이 형성되어지는 것이다.

한편, 베트남여성들의 결혼이주는 1990년대 중반부터 메콩델타지역을 중심으로 대만남성과의 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⁹⁾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제결혼이 자녀를 빈곤에서 탈출시키는 동시에 가족부양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은 대만남성과의 결혼을 이웃과 마을 전체, 그리고 이웃마을로까지 급속히 확산시켰고, 도처에 '대만마을(Xa Dai Loan)'을 탄생시켰다¹⁰⁾(김현재, 2007, 233). 하지만 대만남성과의 결혼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난 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결혼 후 가정폭력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여론이 악화되었고, 2005년 2월에는 베트남 정부의 국제



자료: 소라미, 2004, p.13에서 수정인용

그림 3. 한국과 베트남 결혼중개체제의 변화

결혼 관리 강화 조치로 이어져 대만남성과의 결혼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대신에 한국인남성과의 혼인이 증가하게 되면서(김현재, 2007, 242-244) ‘한국인마을(Xa Hàn Quốc)’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베트남의 북부지역보다 남부지역에서 먼저 나타나게 된 것은 상호역사, 환경, 관습, 기질 등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개방성의 차이 때문이다. 남부베트남지역, 특히 메콩델타 유역은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통치의 중심지로서 코친차이나의 정치·문화·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였고, 자연스럽게 서양의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면서 외부와의 교류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북부베트남지역은 비교적 강한 유교문화의 영향(하순, 2000; 김현재, 2007)으로 ‘폐쇄적 공동체’(Wolf, 1955, 단 여기서는 하순, 2000, 88에서 재인용)를 지향함으로써 혼사에 있어서도 이민족간의 결혼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이모이 이후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 도시근교의 농촌에서의 정보유입의 용이성, 도시내부의 양극화와 함께 과도하게 포장된 한류의 영향 등은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북부지역에 있어서도¹¹⁾ 이민족간의 혼인에 대한 배타성을 약화시키고 있다.¹²⁾ 이와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제도와 전통을 유지함에 있어서의 여성의 중심적 역할 등이 함께 맞물려 북부지역에서도 한국인과 혼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4. 국제결혼의 증가와 초국가적 사회공간으로의 변화

베트남 북부지역의 전통적 여성상은 남편 또는 집안에 대해 대단히 종속적이며 지위도 극히 낮았다(김현재, 2007). 게다가 오랜 기간의 전쟁 등으로 인하여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어갔다. 조상에 대한 예절이 강하게 지켜지는 가운데¹³⁾ 가족과 친지들은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조상이 묻혀있는 가족의 땅에 애착을 갖고 있으며, 장남은 고향을 지키는 경향이 아직도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공동체 의식과 가족 간의 일체감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하는 행위 표출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초국가적 이주를 감행하는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도 국제결혼이 이주자 자신에게 보다 풍요로운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도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본 장에서는 베트남의 한 시골지역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히 확산되어간 원인과 그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 초국가적 사회공간으로 변화해가는 지역사회의 로컬리티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초국가적 이주의 동기

경제난과 취업기회의 부족에 직면하여 선택된 ‘가족전략’의 일환으로서 부모자식 및 형제자매 관계 속에서의 채무 관념이 여성들의 이주를 유인하며, 그에 따라 이주 후에는 지속적으로 송금을 통해 가계에 보태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되어있다는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에 관한 연구(임안나, 2005)에서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여성과의 혼인은 경제활동의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해 선택한 적극적인 행위의 결과이다. 하지만 가족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만든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을지라도¹⁴⁾ 이주를 감행한 행위 자체는 자신들의 의지였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미 연쇄 이주가 성행하고 있는 지역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의 혼인은 반드시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본인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면담에서는 오히려 자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결혼을 권했다고 하는 부모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때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행복은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과 함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베트남 남성관이 작용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으로 이주를 실행하게 된 이유를 교제에 의한 혼인관계를 제외한 경제적인 동기와 사회적인 동기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1) 경제적 동기

하이퐁시와 타이빈성은 전술한바와 같이 수도인 하노이와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항구도시로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외국계 기업의 진출 등으

로 취업의 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한 당사자나 가족들은 외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베트남에서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이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것보다 한국에서 자신이 일을 할 기회를 얻고자하는 것이었으며, 그렇게 하여 벌어들인 돈을 고향의 부모와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우리 남편도 돈 주고..., 중매인에게..., (처음에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부모님하고 같이 결정했어요?)
우리 엄마가 ...
(그러면 엄마가 결혼하라고 했을 때 선뜻 하겠다고 마음먹을 수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만날 울었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근데 음 ..., 집 조금 가난하니까, 그냥 제가 엄마, 아빠 안 힘들게 ... (중략) 엄마도 (원)하고, 저도 또 생각하고... 우리 집은 진짜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 같은 (베트남)사람, 좋은 사람하고 (결혼) 못 해요. 우리 아빠도 아팠으니까. (향○씨)

향○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하이퐁시에서 일용계 의류회사와 미용실, 식당 등에서 일했고 미용기술도 있었지만 가난한 부모님을 도와드리기 위하여 사랑하던 베트남 남성과의 결혼을 포기하고 중개업자를 통해 한국남성과 결혼했다. 이때 결혼을 결심하게 된 동기는 빈곤에서의 탈출이며, 향○씨의 어머니는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에 공진함으로써 향○씨가 적극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었다.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이유에서의 결혼선택은 베트남 남부지역 출신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님이 가난하게 사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친척언니도 한국에 와서 친절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걸 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홍○씨).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하고 결혼할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게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단○씨).

홍○씨는 현재 구미시의 핸드폰 부품 조립공장에서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딸이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결혼을 결심했지만,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유로 딸들의 결혼을 지원하였으며 결혼한 딸이 돈을 벌어서 자신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었다.

큰 딸은 홍콩으로 시집갔고, 둘째도 대학 졸업하고 외국인하고 결혼하고 했어요. 여기서는 여자는 몸이 약하니까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1달에 300만동밖에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시집)가게 했어요.

(많이 벌어서 보내왔나요?)

네, 보내왔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B씨).

딸이 한국으로 시집간 것은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집가는 것을 권유했어요. 시집보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딸이 한국으로 시집가서 가장 좋은 점은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이고, 안 좋은 점은 없어요. 가족 중에서 다른 사람도 노동자로 가거나 시집을 간다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서 보내고 싶습니다(I씨).

응답자들은 딸들이 돈을 보내 줄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했고, 또 그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음에 행복해했다.

(마카오로 시집간) 첫째는 2004년 결혼하고 2년 후에 약 2억 동을 들여 2층짜리 집을 지어주었어요. 좋은 사돈들을 만나서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상의 묘를 지었을 때 6천만 동을 보내주었어요. 또 할머니에게 3돈의 24k 금을 선물해드렸어요. 그 외에 설날이나 명절 때 용돈을 한 번에 약 200달러씩 보내주었어요 (E씨).

이렇게 국제결혼은 자녀를 빈곤에서 탈출시키고 동시에 가족의 생계까지도 해결해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 가족구성원들은 공진하고 있었고, 그러한 공진이 초국가적인 이주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한 만큼 결혼한 자녀가 생각만큼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때에는 아쉬움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 집을 작년에 지었는데 그 때 딸에게 조금,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도움을 받았어요.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도)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돼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딸이랑 사위가 한 10일정도 놀러 왔는데 둘이서 놀러갔어요. 하롱베이로 놀러갔는데 베트남 돈으로 한 3만동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다 대었어요. 이번 설 때 집 지은지 얼마 안 되고 돈이 없어서 왜 돈 안 보내느냐고 전화하니까 “돈 없어” 그걸로 끝이었어요. 여기서는 사위가 설날이면 항상 선물하는데 한국은 왜 안하나요? 오히려 딸 뒤치다꺼리가 더 많아요(C씨).



그림 4. E씨의 새로 지은 집과 이웃의 낡은 집들(2011년 2월 촬영)

(2) 사회적 동기 - 베트남 남성에 대한 불신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베트남 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게 되는 또 다른 동기로는 베트남 남성에 대한 불신과 한국남성에 대한 동경을 들 수 있다. 한국남성에 대한 동경은 한국남성과 먼저 결혼한 여성들로부터의 정보와 함께 한국드라마의 영향,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 등으로 인한 한국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에서 과대하게 포장된 한국남성에 대한 이미지와 부유한 생활은 주변의 베트남 남성들의 생활태도 및 경제적 능력과 비교하게 만들고, 잘사는 나라 한국의 친절하고 자상한 남성들과의 혼인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만들었다. 그리고 먼저 결혼한 여성들의 한국남성에 대한 소개는 그러한 이미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

친척언니가 소개해줬어요. 한국남자들 잘 해주고 착해요. (중략) 네, 원래 베트남 남자들 술 많이 먹고 그렇게... 한국사람 조금 틀려요. 여자한테 잘 하고...(홍○씨).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마음먹은) 제일 큰 이유는 부모님 도와 드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베트남 남자들. 언니들이 결혼한... 그 남자들이 다 술 많이 먹고 안 도와주는 것 때문에 결혼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일도 안하고 놀기만 하니까(단○씨).

이모 딸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 했는데 이모한테서 한국남자 착하고, 한국에서 살기가 좋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베트남 남자 술 많이 먹어요. (중략) 형제는 딸만 4명인데 언니 두 명은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했고 저하고 막내는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형부들은 술은 안 먹는데 가난해요. 이모딸도 보니까 돈 많이 받고, 그렇게 오니까 그냥 좋아하게 되고 결혼했어요(두○씨).

주변에서 보이는 베트남 남성들의 생활습관에 대한 우려는 결혼 당사자인 젊은 여성들뿐 아니라 딸을 둔 부모들에게서도 느낄 수 있다.

(이 마을에서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요?)

아주 많아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가요?)

대답하기 어려운데요. 왜 그런가하면요. 이 마을에 남자들이, 마을에 마약중독자가 아주 많아요. 마약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결혼하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한국으로 시집) 가잖아요. 한명이 가고, 와서는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가고 싶어져서 또 다른 사람이 (시집을) 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요. (중략) 그런데 여기 동네의 남자들이 마약 때문에..., 마약중독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들은 여기서 결혼 못하고 다 다른 지방이나 시골로 가서 결혼하고 그랬어요(A씨).

A씨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슬하에 1남2녀를 둔 A씨의 장녀는 2년 전인 2009년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충청남도에서 살고 있다. 어촌인 이 마을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배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가정이므로 A씨는 딸의 결혼으로 사위로부터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바라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딸이 같은 지역의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베트남의 북부지역, 특히 하이퐁 시는 마약의 유통과 복용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한 마약중독이 사회적 문제로서 대두되고는 했다. 베트남 북부는 세계적인 마약산지인 골든 트라이앵글과 가까운데다가 하이퐁시는 대규모의 항구도시로서 마약을 구하기가 쉽고 가격도 매우 싸다. 게다가 마약중독은 마약 주사기를 통한 에이즈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¹⁵⁾ 이 마을에도 마약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이곳의 남성들에게 딸을 시집보내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는 한국인과의 혼인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히려 아주 좋았다고 한다. 하이퐁 일대의 남성들의 아편문제가 여성들의 혼인을 통한 초국가적인 이주를 촉진시키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결혼 당사자가 가지는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부양의식과 책임감이 초국가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그 원동력의 기초에는 자발적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베트남의 사회적인 병리현상은 또

다른 초국가적 이주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서 공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초국가적 이주의 네트워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모집책들은 베트남의 마을 깊숙한 곳까지 조직적으로 침투되어 있어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두손 마을의 길거리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눈 50대 후반의 한 남성은 자신의 손자도 그런 일(모집책)을 한다면, 한국 사람과 결혼하기위해서는 베트남 돈으로 약 3000만동은 지불해야 소개를 시켜준다고 했다. 그리고 그 돈은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인 남성이 지불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면담결과 베트남여성들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결국 여성들이 결혼 후에 갚아야할 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런데 국제결혼이 연쇄이주의 형태로 계속 확산되어가는 가운데 부모와 이웃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감행하는데 공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두손과 같이 100여 가구가 있는 한 마을에서 70명 정도가 국제결혼한 마을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1) 친구

친구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대개의 경우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친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친구를 통해 서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후 한국의 남성과 친구가 함께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상대와 직접 대면을 하고 결혼을 결정하게 된다.

딸의 친구가 한국에 취직하러 갔다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남편이랑 남편의 친구랑 같이 베트남에 놀러왔는데, 그때 둘이 만나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결혼하자고 했을 때에는 거절했는데, 삼일 있다가 한국 돌아가기 전날 집에 와서 다시 결혼하자고 해서 집안 전체가 모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시고, 다 있는 자리에서 딸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가고 싶으면 가라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하고 그 준비로 사위가 다시 2번 더 들어와서 결혼했어요(A씨).

위의 사례와 같이 한국인남성이 직접 베트남으로 가서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교제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도 한다. 즉 친구와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의 연결망을 통하여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이다.

딸이 한 명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는데 한국으로 간지는 3년, 출산한지 1년 되었습니다. 딸은 현재 22살인데, 한국에 있는 친구가 소개해줘서 인터넷 영상채팅을 통하여 결혼했습니다. 사위는 올해 40세입니다(C씨).

(2) 친척과 가족(자매)

친척이나 가족 중 한 명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경우로서 이럴 때에는 소개한 사람의 결혼생활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가족들의 찬성과 권유가 당사자의 결심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일단 형성된 네트워크는 계속하여 확산되어간다.

둘째 딸이 결혼해서 한국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언니의 소개로 셋째 딸도 한국으로 시집가서 잘 살고 있어요(E씨).

친척언니 통해서 결혼했어요.

(친척언니는 어떻게 남편과 만났어요?)

음...; 우리 남편 고모가 언니 집에 옆에 있어요. 언니보고 착하고 동생 예쁘면 소개시켜주라고 그랬어요. (중략) 언니도 여기 남편도 만났어요. 착하게 잘해 주어요. 그래서 소개해 줬어요.

(고향에 부모님은 다 계세요?)

엄마, 아버지 다 계시고, 언니 5명과 오빠...; 9남매예요.

(그럼 9남매 중에서 한국인하고 결혼한 사람은 ○란씨 혼자예요?)

아뇨, 여동생 있어요. (중략) 저의 친척언니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공장에 놀러 갔어요. 거기에서 지금 여동생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나다보니까 그 남자가 언니보고 (저에게) 여동생 있냐 해서...; 그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란씨).

○란씨는 먼저 한국인과 결혼한 친척언니의 소개로 결혼해서 입국한 후 다시 그 친척언니의 소

개를 통하여 자신의 여동생까지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이다. 이때 면담내용에서 나타난 것만으로도 친척언니는 두 명의 여성을 한국인과 소개한 것이며, 여동생의 결혼에는 친척언니와 친언니 두 명이 매개자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응답자 중에서 외숙모 딸을 소개해서 결혼에 이르게 한 항○씨나, 먼저 결혼한 이모 딸이 남편을 소개해 준 단○씨, 남편회사의 사장님을 친동생에게 소개해 준 두○씨처럼 결혼한 이주여성들을 매개로 한 혼인은 이제는 일반화되어 있다.

(3) 이웃

점차로 한국인남성과의 혼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웃끼리 서로 혼기에 찬 딸들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이런 때에는 부모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되면서 적극적인 공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노이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을 때, 옆집사람이 딸을 한국에 보내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보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딸을 소개해주었고 지금의 사위를 얻게 되었어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좀 걱정했는데 제가 권유해서 찬성하게 되었어요. 작은 딸도 보내고 싶어요. 큰딸이 한국에서 좋은 사람이 생기면 소개시켜준다고 했어요(F씨).

이렇게 가족과 친척, 친구 등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 마을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국제결혼을 하는 자녀의 수가 많아지게 된다. 심지어 세 명 있는 딸들 중에서 두 명이 한국으로, 한 명이 마카오로 결혼해서 간 사례(E씨의 경우)까지 나타난다. 또 다른 한 가정에서는 친척 중에서 3명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한 명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결혼해서 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한명은 대만 사람과 결혼하여 갔다고 한다.

한 마을 내에서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는 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유교적인 색채가 강한 북부지역에서도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하여 자

연스럽게 관대하고 개방적으로 되어갔다. 부모의 이러한 관대함은 딸이 원한다면 한국이나 대만으로의 결혼을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딸이 국제결혼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태도로 나타났고, 딸이 한국에서 살면 베트남에서 사는 것보다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행복을 누리게 된 딸이 부모를 위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3)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인식과 사회공간의 변화

(1) 결혼이주여성의 인식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로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편과의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비록 대화가 어렵더라도 한국남성과의 결혼에 만족하고 있었다.

베트남 사람들 술 많이 마시는데 한국은 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아요. 남편은 크게 짜증내고 화내는 것도 없고 한 번씩 친절 부모님에게 돈 보내드리고, 큰 어려움은 없어요. 답답한 것은 남편과 대화가 거의 없어서... 베트남에 전화하고 싶으면 그냥 남편이 알아서 전화카드 2~3개씩 사줘요. 제가 잘하니까 남편도 잘 해줘야죠. (중략) 시댁식구들이 다 좋아요. 한국말을 못해서 시댁과 남편과 의사소통하고 싶은데 잘 안되니까 답답해요(홍○씨).

베트남에서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교통이나 모든 편의시설이 베트남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남편은 아주 잘 해줘요. 집에 와서 설거지도 하고, 애도 잘 돌봐주고 청소도 다 해줘요. 어디 놀러가고 싶으면 태워주고...(단○씨).

그런데 응답자 중에서 항○씨는 연구자와의 첫 만남에서는 남편과 시댁식구가 무척 잘해준다고 말했지만 만남이 몇 차례 이어지고 라포가 형성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친정의 부모에게 돈을 보낼 수 없다는 점이 불안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조차 없는 생활에 대한 불만과 함께 남편이 자기를 믿지 않

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집식구들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다. 심지어 베트남에 돈을 보내는 문제와 자신을 친정에 보내주는 것마저도 시집식구들과 의논하는 남편의 태도에 속상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1년 동안 밖에도 못나가고 돈도 없었어요.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베트남 여자랑 결혼하면 대부분의 남편들이... 도망갈까 봐. (중략) 근데 우리 남편이 나이 조금 있으니까 점점 더 해요. 나이 있으니까 성격이 조금 바뀌어요. 만날 짜증내요. (중략) 제가 5년(전에) 한국 왔는데 일 못 했어요. 일에 가면 혹시나 친구 만나 도망 갈까봐... (중략) 불안했어요. 친정 돈 많이 안 도와 못해요. 그냥 남편이 왔을 때 조금만 30, 50만원 그냥 조금만 주어요. 그냥 생활비하라고. 제가 우리 친정만..., 지금 큰 돈도 없어요. (중략) 우리 남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말도 잘 안하고 맨날 짜증내고... (중략) 우리 남편 무슨 일 있으면 저도 모르잖아요. 얘기도 안하고. 그냥 혼자만 끄끙하고 고모(한테)만 전화하지. 식구(한테)만 전화하지. 제게 얘기 안하지. 제가 어려서 부인 아닌 것 같아. 이 생각 들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계속 식구들한테 전화하잖아요. 제가 지금 돈해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나하고 부모들한테 물을 때에는 저도 더 속상해요(향○씨).

자신의 체면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서는 결혼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남편·시댁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더욱이 가난한 친정가족을 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안고 있는 사례는 향○씨뿐만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었으며, 응답자들과의 대화가 계속될수록 그들은 모국의 가족들에게는 자신들의 고충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자산업이 발달한 구미시에는 베트남여성들처럼 한국말이 제대로 안되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여성들도 할 수 있는 부업이 많아서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이 가내부업을 하고 있었으나 그것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생활비에

보태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계속 집에 있어요. 부업해요. 이거 하나하는데 10원 받는데 하루 종일 한 달 일하면 30만원. 집에 다 써도 모자라요. (남편이 주지 않나요?)

네, 시장가도 이 돈으로 쓰는 거예요. 생활비 30만원 밖에 안돼요. 먹는 거랑. 그 대신에 아파트 관리비 모든 비용은 남편이 내고, 내가 그냥 먹고 사는 거... (중략) 친정. 1년에 100만원, 남편이 보냈어요(두○씨).

지금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부업¹⁶⁾으로요. 하루 8시간 일해요.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그렇게 해서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어요. 이렇게 일해서 친정에는 가끔 돈을 보내요.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마음 먹은 제일 큰 이유는 부모님 도와 드리는 것. 두 번째 이유가 언니들이 결혼한 베트남 남자들이 다 술 많이 먹고 잘 안 도와주는 것 때문이에요. 일도 안하고 놀기만 하니까. (중략) 남편은 베트남의 부모님이 집 지을 때 딱 한번 6000달러 보내줬어요. 지금은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보내드려요(단○씨).

자신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모국의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원하고, 자신들의 기대만큼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응답자들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베트남여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2) 가족의 인식

시집간 딸이 결혼 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부모들은 많은 걱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고 안심시켜주는 방법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며 남편과 시집식구들이 친절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부모들은 딸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고, 시집을 잘 보냈다고 생각하게 된다.

처음에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5일 정도, 1주일정도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많이 걱정했는데 사위가 자기 집, 차 모든 것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옆집

사람들이 영상으로 보면 이래도 실제로 가면 안 그렇다고 해서 영상을 보고도 걱정했는데, 딸이 결혼해서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니 사위가 아주 예쁘고 좋은 차로 마중 나왔대요. 그래서 안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임신했는데 2개월째에 유산되었대요. 그래서 많이 걱정했는데, 혹시나 시어머니가 무서운 사람인가 걱정했는데 시부모님과 형제들이 아주 좋대요(A씨).

(두 명의)딸들이 한국으로 시집간 것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한국인 사돈들이 딸들을 너무 좋아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제일 좋고요. 저의 아내는 딸들이 출산했을 때 산후 조리해주러 한국에 두 번이나 갔는데 사돈들이 아주 많이 잘 해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사주시고 머리도 파마해주시고…….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의료시설이 아주 편리하다고 딸들한테서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병원에 가려면 너무 힘들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과 아는 사이이어야 쉽고 빠르게 진찰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 해서 너무 좋습니다. 딸들이 그런 좋고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딸들을 한국으로 시집보내서 나쁜 점은 없습니다(E씨).

딸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서 행복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하면서 부모들은 그렇게 행복한 딸이 자신들을 위하여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한국에 잘 시집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위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딸이 한국에 간 후에 엄마한테 많은 것을 보내줬어요. 사돈도 좋은 이불을 보내주셨어요. 사위가 집을 2층으로 다시 지으라고 해서 다시 지었어요. 사위가 베트남에 놀러올 때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다시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위의 뜻대로 2층으로 집을 지었어요. 딸을 한국으로 시집보내서 가장 좋은 점은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베트남에 올 때마다 친척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었고 2층 집도 지어주었습니다. 딸은 한국에 시집간 후로 건강해보이고 보기가 좋습니다(F씨).

하지만 C씨처럼 자신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섭섭함을 나타내면서 자신보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이웃을 동경하기도 한다.

아주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집도 있어요. 어떤 집의 딸은 시집갔는데 베트남 돈으로 10억 동 정도 보내 준 집도 있는데 엄마가 땅을 사고, 이것저것 산다고 그래요(C씨).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딸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희망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딸은 시집을 잘 갔다고 안도하면서도 한국으로 시집간 딸들이 말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행복할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자신의 딸의 행복은 믿고 싶지만 대개의 이웃집 딸들이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실보다 더 과장하여 이야기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A씨의 옆집 사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이 아닌 이웃의 이야기나, 전해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과 자신들의 이야기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신들과 비교하여 타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비판 혹은 동경의 시선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가족이야기는 행복하다고만 느끼고 싶지만 타인의 삶과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자신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질 때도 많다.

(3) 지역사회의 인식

홍강 하구에 위치한 두손 마을은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전형적인 어촌이다.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조업을 하는 주민들의 생활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나타나는 가옥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그다지 풍요하지 않다. 그런데 필자가 방문했을 때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초라한 어항의 낡은 집들 사이로 군데군데 깨끗한 새집들이 들어서 있는가하면 도처에 집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집들을 마을 사람들은 ‘대만집’ 혹은 ‘한국집’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결혼한 딸들은 부모와 남겨진 가족들을 위하여 생활비뿐만 아니라 노후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금을 보내주기 시작했고, 한 집이 먼저 낡은 집을 허물고 깨끗한 새집을 지으면, 그 이웃에서도 새집을 짓

기 시작했다. 때로는 새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돈을 얼마나 보내주는가가 마을에서는 딸이 시집을 잘 가고 못간 판단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는 현지 언론의 다음과 같은 기사¹⁷⁾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키티(Kien thuy)현에 있는 두손(Tu son) 마을에 갔다. 몇 년 전 만해도 화려한 Phuong 꽃으로 덮여있던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화려한 집들로 변해 있다. 우리는 이 어촌 마을이 요즘 일이 잘되어서 이렇게 많이 발전된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고 마을사람들이 대답했다. 그 집들이 ‘한국집’, ‘대만집’이라고 한다. 우리의 어리둥절한 얼굴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말했다. 여기에 있는 좋은 집들이 대부분 딸이 외국인과 결혼해서 보내준 돈으로 지은 집이라고 했다. ‘한국 집’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보내준 돈으로, ‘대만 집’은 대만사람과 결혼해서 보내준 돈으로 지은 집이라고 한다.

우리는 Hung 이라고 마을 사람의 집에 들어서 물어봤다. Hung씨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대학입학시험에 떨어져서 진학은 못 했다. 그래서 하나는 한국에 보내고 하나는 대만으로 시집을 보냈다. Hung씨에 따르면 최근에 두 딸은 5억 동을 보내주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의 집을 지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한국인이 보내준 돈으로 잘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적인 시선을 보내며 한국, 대만인과 결혼해서 보내준 돈으로 좋은 집을 지으면 ‘한국 집(Xa Han Quoc)’, ‘대만 집(Xa Dai Loan)’이라고 비아냥거리므로 외국인과 결혼하는 딸이 있는 집들은 마을 사람들한테서 놀림을 자주 당해서 창피하게 생각한다(위의 기사에서 마을촌장의 대답내용).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과의 면담에서는 오히려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보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와, 똑 같이 한국으로 시집보냈는데도 이웃처럼 집을 지어주지 않는 딸



그림 5. 두손마을의 경관과 중간 중간 보이는 ‘한국집’과 ‘대만집’ (2011년 2월 촬영)

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마을에서도 한국으로 시집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웃집에 한국 사람과 결혼한 딸이 있는데 아주 시집을 잘 갔어요. 이번 설날에 엄마, 아빠에게 와서 한국 돈 약 3000만원 정도 주고 갔대요. 우리 딸은 돈 안주는데 다른 집 딸들은 잘해요(C씨).

이렇게 딸들의 도움을 받는 가정에 대한 이웃의 관심은 때로는 동경으로, 때로는 부러움이 내포된 질서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될 때 그 양상은 더욱 심화되기도 하는데, 공동체와 차별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구성원들에 대한 집단적인 행위표출의 단적인 예를 ‘한국집’ 혹은 ‘대만집’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다.

한편, 현지에서 실제로 들어가 본 집안에는 공통적으로 한국에서 보내 온 인삼으로 담근 인삼주가 진열되어 있고, 한국산 전기밥솥, T.V 등이 놓여 있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딸이 원하는 베트남음식은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국경을 초월하여 가족 간의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송금 등의 수단을 이용한 물질적인 교류가 함께 이루어짐으로서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두 지역사이에서 유사한 패턴의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의 형태와는 다르게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 변화에 편승하는 자와 편승하지 못하는 자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서로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에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 경제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기존의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던 특성이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4)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진형

2009년도에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민자의 현재 삶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전체 응답자의 56.8%가 (매우) 만족한다고 하였다. 이를 실태조사에서는

‘기대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는데(동 보고서 p.653), 이는 현재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하더라도 모국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경제활동과 문화생활 등에 관한 욕구 수준에 비교적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도이모이 이후 급격한 도시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시대적 변화와는 동떨어졌다고 생각되었던 시골마을도 더 이상 세계화의 흐름과 무관할 수 없게 되었고, 유교문화권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북부지역에서도 젊은 여성들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이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가족제도의 전통은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자발적인 초국가적 이주를 감행하도록 하였고, 일단 형성되기 시작한 이주의 회로는 연결의 고리를 더욱 확산시켜나가면서 연쇄이주를 유도하였으며, 초국가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족들의 생활양식의 변화는 시골마을의 경관을 변화시켜 나갔다.

초국가적 이주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주를 지지하는 인적·물적·사회적 제반 여건이 전제되는데, 이러한 제반여건은 또한 이주를 더욱 전파하고 촉진시키는 매체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이주의 공진자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 북부지역에서는 사회 환경의 영향아래 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가족·친구 등의 직·간접적인 이주에의 매개 등이 공진자로서 작용하여 초국가적 이주를 촉진시키면서 지역사회의 특성 - 로컬리티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초국가적 이주의 목적의 달성여부는 이주자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결과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가족의 생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의 여성들은 이주후의 상황여부와는 무관하게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통성을 나타내며, 모국의 가족들은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제결혼에 대해 만족하고, 딸들이 보내주는 송금으로 그들의 부유한 삶을 추측하면서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켜 나간다. 그리고 모국의 가족들과의 빈번한 인적·물적 교류는 서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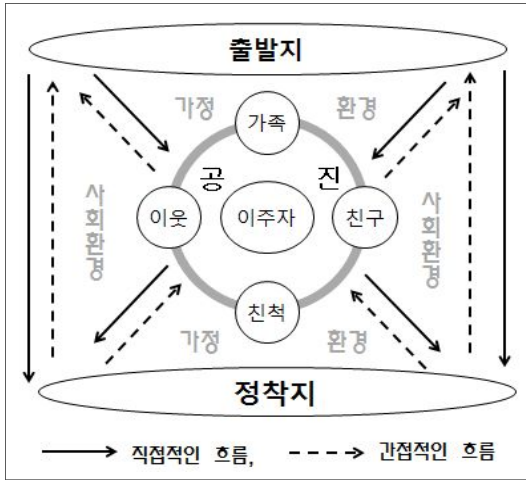


그림 6. 초국가적 이주와 공진자의 역할

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공유하게 됨으로서 전통적인 로컬의 생활양식이 양국, 혹은 수개국의 그것과 혼합되면서 변화하는 공간상의 크레올화가 진행되고, 초국가적인 사회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동참하는 정도와 인적·물적 교류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지역 구성원간에 동경과 갈등이 교차하면서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양상은 변화해간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국가적 이주의 유발요인으로서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배경은 물론, 초국가적인 관계망 형성으로 인하여 변화하고 있는 이주자의 송출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공간의 형성과 변화에 주목하였다. 국제결혼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여성들의 경우, 강한 가족 결속력과 유교적인 관습으로 인하여 국내에 정착한 이후로도 계속하여 가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의 유지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대면 접촉뿐만이 아니라 전화와 인터넷 등의 통신망을 통한 접촉, 송금과 물자의 교류 등과 같이 상호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물리적으로는 떨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공간을 점유하게 되는 초국가적인 사회공간이 출현하게 되었다. 즉 송출지역과 이주지역 모두에서 양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혼종성을 띠는,

그리고 나아가 직접적으로 이주와 관련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이질성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초국가적 사회 공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유입국에서 나타나는 이주자들로 인한 사회공간에 관해서는 국내에서도 다문화공간, 트랜스로컬리티, 에스닉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용어로 이미 알려지고,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형성과 변화에는 매개자로서의 이주자의 존재와 함께 세계화에 있어서 상호관계에 있는 특정지역의 존재가 반드시 요구되며, 사회공간의 변화는 이렇게 교류의 대척점, 혹은 상호관계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도 변함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대만인과 결혼한 여성이 많은 한국마을과 대만마을의 출현은 해당지역의 크레올화되어가는 지역성(로컬리티)의 변화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마을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본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과 가족들 사이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소통과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송금 등의 수단을 이용한 물질적인 교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들은 서로가 물리적으로 떨어져있는 두 지역에서 한국의 딸은 가족이 보내준 베트남 음식을 먹으며, 베트남의 가족은 딸이 보내준 한국 차를 마시고, 한국가전제품을 사용하면 한국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필요할 때 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상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마을에서의 생활양상은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에 편승하는 자와 편승하지 못하는 자가 공존하는 공간에서 커뮤니티 구성원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고유의 지역성과 문화, 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호간의 이질성과 동경심을 유발하고 있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눈에 띄이는 부의 수혜 형태는 결혼한 딸의 도움으로 세워진 주택이었다.

한편, 정보와 물자가 집결할 뿐만 아니라 정보와 물자가 교류하는 지점, 그리고 초국가적인 이주를 실현하는 주체인 이주자의 출발점과 도달점이 되는 지역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송금행위와 같은 이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주의 회로, 즉 초국가주의를 유도하는 흐름(flow)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개가 이곳에는 그 흐름을 전

달하고 증폭시키는 공진자가 존재한다. 이 공진자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모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이웃이 될 수도 있으며 사회적 환경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한 베트남 북부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그들의 초국가적인 이주행위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부모형제의 공진자로서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비교적 유교문화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는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해야만 했던 전통적인 여성상에 이들 공진자의 영향이 더하여졌고, 여기에 베트남 남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사회 환경은 젊은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었다. 즉, 국제결혼은 아직 강하게 남아있는 공동체 의식과 가족 간의 일체감으로 인하여 젊은 여성들이 가족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하는 행위의 표출이었고, 불리한 사회적 환경 하의 베트남 남성으로부터의 도피이기도 했다. 그런데 국제결혼이 반드시 당초의 의도나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모국의 가족들은 이주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고, 이주여성들은 그러한 확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다. 더욱 더 견고해져가는 이주회로의 존재, 초국가적 사회공간의 진화, 공진자의 역할 등으로 인하여 일견 한 젊은 여성의 희생으로도 보일 수 있는 초국가적 이주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하여 확산되고 있으며, 세계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을 것 같은 평범한 시골마을에서도 초국가적 사회공간이 형성되고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

- 1)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12월 말 현재 한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여성결혼 이민자수는 125,031명으로, 그 중 베트남 여성이 약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 한국계 중국인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전사과정에서 한국어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응답자가 말하는 대로, 중간 중간 베트남어로 말하는 것을 통역한 것은 통역자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본고에서는 응답자가 한 말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말한 것은 어휘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옮겼고, 통역에 의한 것은 문맥이 통할 수 있도록 문장을 일부 수정하였다. 베트남 현지조사에

서는 거의가 통역에 의한 면담이었으므로 응답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문장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 3) 외관이 좋은 집을 선정한 이유는 후술할 내용과 같이 국제결혼 한 딸들이 보내준 돈으로 새로 지은 집들이 많아지면서 ‘대만 집’ ‘한국집’이라는 명칭이 공공연하게 붙여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 4) 인터뷰대상자 11명 중 A, C, D, E, F, G의 6명과는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이외의 5명과는 가족 구성원의 한국인과의 결혼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
- 5) 해당 뉴스는 두 군데의 정보회사(http://www.vinah.com/jisik_IN/125097, <http://cafe.naver.com/getkon/754>)의 기사에서 검색할 수 있었으나 베트남 한국대사관, 베트남 뉴스 등의 검색을 통해서서는 찾을 수 없었음을 밝힌다.
- 6) 쇠신이라는 뜻으로, 1986년의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제기되었다. 주로 경제(가격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성의 향상), 금융 면에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의 도입이나 대외개방정책이 도입되어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위키백과, 2013.5.15 검색). 한편, 베트남사회는 도이 모이 이후로 빠른 경제성장이라는 성과와 함께 지역갈등, 계층 간 소득격차, 부정부패 등의 문제들을 목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김지은, 2007, p.17).
- 7) 2002년 발표된 가족법 68호 명령(Decree No.68)은 제2조 1항 ‘국제결혼은 보호되어야하며, 국제결혼을 통한 인신매매, 노동착취, 성폭행, 기타 착취행위를 금한다’, 제 2조 2항 ‘이윤을 목적으로 한 결혼중개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소라미, 2004. 단 여기서는 김지은, 2007, p.19에서 재인용).
- 8) 보건복지가족부와 법무부, 여성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출신여성결혼이민자의 66.6%가 결혼중개업체를 통하여 배우자를 만났으며, 가족·친척의 소개가 17.4%, 친구·동료의 소개가 10.6%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의 정착기간이 긴 중국(조선족)과 중국(한족)의 경우, 소개에 의한 만남이 각각 66.8%와 53.4%로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만남보다 월등하게 그 비율이 높다. 이는 초기단계에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나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결혼중개업체보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당사자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더욱 많이 획득할 수 있으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친지간의 소개를 통한 혼인이 선호되기 때문이다.
- 9) 1991년 베트남이 자본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자마자 대만의 중소기업들이 대규모로 베트남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만자본의 진출은 동시에 베트남 여성을 현지처로 맞이하는 대만인들의 수를 증가시켰고, 베트남여성의 대만으로의 조직적인 결혼이주를 추동시켰다. 대만과 베트남 현지 중개업자들이

- 개발한 중개시스템에 의해 대만남성과의 결혼은 더욱 증가하게 되는데 2000년에는 그 수가 14만 명에 이르렀다(김현재, 2007: 241).
- 10) 김현재(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내 거주 베트남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들이 베트남에서 ‘딸을 외국인과 결혼시키는 것’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하나의 전략으로 채택되고, 외국인과의 결혼이 ‘대단한 성공(a big success story)’로 회자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계층의 사람들임을 밝혀냈다(p.223).
 - 11) 베트남 북부지역이 유교문화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국내의 결혼중개업체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베트남이 유교 윤리를 통치원리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중국문화권의 일부로 강력한 유교적 부계 사회라는 설이 있지만, 현재 베트남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전근대시기 유교윤리의 수용은 북부의 일부 지배계층에 한하며 일반 서민에게 보급된 것은 기껏해야 18세기 이후일 뿐, 베트남은 고대에서부터 양계적 성격이 강하고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동남아시아 문화권의 특성을 보여해왔다는 것이 정설로 확립되어있다(유인선 1996, 216-220, 단 여기서는 김지은 pp.79-80에서 재인용). 하지만 대체로 북부는 중국적인 가족제도의 영향이 엿보이지만 남부로 갈수록 동남아시아적인 가족제도 전통이 뿌리 깊게 남아있었다는 데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가문에 대한 공동체의식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어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뷰 및 현지조사에 의하면, 베트남여성들이 고국을 방문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과 친지에게 전해줄 선물을 들고 인사를 다닌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선물을 사가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그것을 어길 때는 예의범절에 어긋난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출국과 입국시에 공항까지 친척들이 맞이하러 나오는 사례도 많으며, 귀국시 뿐만 아니라 출국시에도 친지를 방문하여 인사를 다니는 점 등에서 가족과 친지간의 유대관계를 엿볼 수 있다.
 - 13) 베트남의 가정에는 조상을 모시는 제단을 마련해두고 음식을 공양하며, 사당에서 집안의 제사를 지낸다. 그리고 먼 길을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사당에 가서 예를 올리고 집안의 어른에게 인사를 다니기도 한다.
 - 14) 베트남여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한 이유에 관한 연구 중에서 김지은은 가족들의 질병, 사업실패, 자연재해 등 급작스런 난국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때마침 찾아든 현지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일반적인 베트남 여성의 결혼이민 서사와 그렇게 하여 코리안 드림을 품고 가족을 떠나 한국으로 간 딸로 인해 일환친금을 얻어 온 친정식구들이 ‘팔자를 뜯어 고치고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친정식구의 만성적인 가난과 생계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의지가 결혼이민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다(김지은, 2007, 33-37).
 - 15) 한겨레21의 2004년 8월18일 자 기사에는 하이퐁시

의 높은 HIV감염율과 베트남의 HI양성반응자 중 60%는 마약주사기를 통해 감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건센터의 벽에 마약주사기를 소독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을 정도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뉴스 「신짜오 베트남」 2008년 8월 29일자에서도 하이퐁시의 바에서 마약과 헤로인 수습 봉지를 압수한 사실을 게재하였고, 서울신문에서도 마약주사기사용으로 인한 베트남의 에이즈 문제를 다루고 있다. 베트남 북부지역의 마약문제는 이제는 그다지 새로운 사실로 여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16) 비정규직을 의미하는 뜻함.

17) 기사출처: <http://vietbao.vn/Phong-su/Lay-chong-ngoai-Tram-ngan-ly-do/1735180749/262/>

문헌

- 김선임, 2010, 다문화, 종교, 그리고 차이의 정치;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의 형성과정 - 해화동공동체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14권, 45-82.
- 김지은, 2007, 적응과 세력화의 경계에 선 외국인 아내들 - 농촌지역의 베트남 결혼이민자 사례,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논문*
- 김현재, 2007, 베트남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219-254.
- 노대병, 2000, 앙리 르페브르의 ‘공간생산이론’에 대한 고찰, *공간과 사회*, 14, 36-62.
-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연구.
- 소라미, 2004, 국제결혼가정의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지원 현황 및 과제,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심포지엄, 이주여성 인권센터
- 소진광, 2011, 베트남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2), 73-94.
- 여성과 공간연구회(윤희김), 2010, 젠더·정체성·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서울(Linda McDowell,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Polity Press Ltd., Cambridge)
- 이영민·이용균·이현옥, 2012, 중국 조선족의 트랜스 이주와 로컬리티의 변화연구: 서울 자양동 중국음식문화거리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2), 103-116.

- 이용균, 200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 이호상, 2011, 에스닉 커뮤니티 성장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 도쿄 신오쿠보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4(2), 125-137.
- 임안나, 2005, 한국남성과 결혼한 필리핀 여성의 가족관계와 초국가적 연망,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 정병호·송도영, 2011, 한국의 다문화사회와 공간, 문형사, 서울.
- 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 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95-314.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최병두, 2011, 초국적 이주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학제적·통합적 연구를 위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 15.
- 하순, 2000, 메콩델타-역동적인 문화와 역사의 세계, 국제지역연구, 4(2), 81-112.
- 한건수·설동훈, 2006,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연구, 보건복지부
- 한도현, 2000, 시장경제 도입이후 베트남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동남아시아연구, 10, 67-94.
- 한정우, 2008, 안산시 원곡동 이주민의 영역화과정, 한국고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환경부·한국환경기술진흥원, 2008, 베트남 지역별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수립
- 클레어 엘리스 지음, 김양희옮김, 2005, 지구촌 문화충격탈출기 Curious 베트남, 휘슬러, 서울, 81
- 田淵太一·原田太津男·尹春志(訳), 2004, グローバル空間の政治経済学, 岩波書店, 東京. (Saskia Sassen, 1998,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he New Press, New York).
- 藤巻正己·瀬川真平, 2009, 現代東南アジア入門, 古今書院, 東京.
- 広田康生, 1995, エスニック・ネットワークの展開と回路としての都市, 奥田道大編, コミュニティとエスニシティ : 21世紀の都市社会学, 勁草書房, 東京, 302.
- 広田康生, 2003, 越境する知と都市エスノグラフィ編集: トランスナショナリズム論の展開と都市的世界, 渡戸一郎・広田康生・田嶋淳子(編), 都市的世界・コミュニティ・エスニシティ, 明石書店, 東京, 14-46.
- 森田桐郎(訳), 1994, 労働と資本の国際移動, 岩波書店, 東京(Saskia Sassen,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 Clifford, K., 1997, *Routes: Travel and Transl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Dong-Hoon Seol, 2011, Ethnic enclaves in Korean cities, Tai-Chee Wong & Jonathan Rigg, *Asian Cities Migrant Labour and Contested Spaces*, Routledge
- Goldring, L., 1996, *Blurring Borders: Constructing Transnational Community in the Process of Mexico - U.S. Migration*, Research in Community Sociology, 6, 69-104.
- Levitt, P., 2001, *The Transnational Villager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P.Smith and L.E. Guarnizo, 1998, *Transnationalism From Below*,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N.J.
- Statistical Publishing House, 2009, Socio-Economic Stastical Data of 63 Provinces and Cities
- 베트남 뉴스 신짜오베트남, 2008.8.29
http://www.chaovietnam.co.kr/board_view_info.php?idx=1948&xs_where=&xs_word=&page_num=24&seq=93
- 서울신문, 2004.8.1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id=20040818025002&keyword=주사기>
<http://blog.naver.com/hyh1822?Redirect=Log&logNo=20045489749>
- (접수: 2013.07.11, 수정: 2013.07.24, 채택: 2013.08.09)